

“여주 골목상권 침체는 지역경제 몰락”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 ‘공급자 중심 지원’ 지적

“지역자원 활용한 테마상권 조성으로 상권활성화 모색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의원은 4일 경기도 남동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주지역 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상원)과 함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여주로타리 상인회 이병호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코로나 종료선언 이후에도 골목상권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서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골목상권지원사업’과 ‘골목상권 대학협업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개선과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에는 골목상권이 처해있는 환경개선이 더부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상원 김경호 상임이사는 어려움에 있는 여주의 골목상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4일 경기도 남동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주지역 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의 사업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제도개선과 재정투입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타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해 통한 지역맞춤형사업으로 전환과 연합조직을 통한 정책 제안과 자발적인 해결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부의장은 여주시가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김규창 의원은 당사자인 골목상권 상인들의 제안과 경상원 그리고 행정의 지원사업과 정책들이 결합해 효과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여주지역 골목상권의 침체는 단지 상권의 문제만이 아니

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5일 ‘경기도 전통시장의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의 마련과 규제 개혁 및 경기도, 여주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김민창 기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안 마련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민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 및 이륜차로 인한 소음피해 근절방안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나상길(민주당·부평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나남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진행해 시민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높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이 목적이다. 또한 상위법률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신고 방법을 조례로 담았다.

나 의원은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했고,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면 날마다 심각해지는 소음 유발 및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중삼 기자

경기도 지방재정확보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 하반기 운영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5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지방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하반기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 변경된 위원 정경자(기획재정위, 비례) 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면밀한 검토 및 하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등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논의

했다. 예산정책위원들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 받은 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의 재분배를 주문하고 재원마련의 적정성과 증액사업의 필요충분조건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예산정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예산정책위원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예산정책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법률안 제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5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지방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하반기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면밀한 검토 및 하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등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개선 촉구 및 경기도·도교육청 예산분석을 통한 도정질, 재정포럼 등으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연천) 위원장, 김희철(화성6) 부위원

장, 한원찬(수원6) 위원, 정경자(비례) 위원, 방성환(성남5) 위원, 김동규(안산1) 위원, 이홍근(화성1) 위원, 이영희(용인1) 위원, 김진경(시흥3) 위원, 오세풍(김포2) 위원이 참석했다.

김민창 기자

의회 단신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선옥 인천시의원 대표 발의

앞으로 심야 시간, 주말, 대체공휴일 등에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서비스비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국민의힘, 남동2·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및 응급·입원진료 지연이 발생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

춰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인천시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3곳(미추홀구·청라·검단)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 앞으로 추가적인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소아과 오픈 및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보건의료의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조례안이 조금이나마 지역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수원시 주민자치회 개선 방안 모색

수원시의회 정책토론회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은 6일 수원시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협의회의 현주소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문경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한 뒤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전대욱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은 ‘수원시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협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양자 간의 비교분석과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각각의 현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의회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남기민 수원시 마을자치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주민자치회의 추진 방향,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협의회와의 상생방안 등 수원시 주민자치 발전과 정착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패널로 나선 장미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협의회와의 발전을 위해 각 단체의 역할과 기능 검토를 통한 수원시 차원의 제도적 정비와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문경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토론회를 통해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주민자치의 현 모습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의회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인천 미추홀구민 권익 보호 앞장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도 제27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안건들은 7일까지 각 상임위원

회별로 심사를 거쳐 8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상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들 하나하나가 지방정부와 구의회의 발전적 운영과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 만큼 신중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다가올 추위에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번 보듬을 수 있는 관심과 배려의 의정을 당부했다.

유동수 기자

▶ 차별화된 오프라인 광고

LED전광판 / 와이드 / 지하철 / 버스

- 도심 한복판 최적의 위치에 성공적인 마케팅 기획
- 고품질의 영상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와이드 조영,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 다양한 옥외광고로 귀사의 성공적인 홍보 기대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이어드립니다.

일간경기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74~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TEL : 032)508-0006 / FAX : 032)293-5030